

## 새뮤얼 존슨의 양면성: 기독교적 도덕주의와 세속적 야망

박영원 충남대 교수

새뮤얼 존슨(Samuel Johnson, 1709-1784)은 전형적인 기독교 도덕주의자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영국에서 존슨만큼 깊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글쓰기와 도덕주의를 결부시킨 작가도 흔치 않다. 그에게 있어서 문학은 기독교 신앙의 표현 방식이었고,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는 행동 양식이었다. 이처럼 작가로서의 소명을 다하기 위한 그의 헌신은 성직자의 소명과 같은 차원에 기반을 둔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그의 글쓰기는 더 높은 도덕적, 영적 목적을 위해 쓰임 받아야 한다는 봉사의 개념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기독교에 기반한 존슨의 문학은 개인과 사회를 개선하려고 했던 18세기 계몽주의 사상과 공유하는 바가 적지 않다. 비록 보수적 전통과 제도화된 교회를 지지하고 왕정에 충성한 존슨의 과도기적 태도는 이성(reason)을 강조하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사회적으로는 세속주의(secularism)를 신봉한 전형적인 계몽주의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학을 윤리적 가르침을 위한 도구로 여겼던 그의 믿음은 학습과 도덕적 명상을 통하여 자신을 개선(self-improvement)할 수 있다고 가르쳤던 계몽주의 정신과 일치한다. 특히 문학과 글쓰기의 목적은 미덕(virtue)과 품위(behavior)에 초점을 맞춰 개인과 사회를 바르게 세운다는 점에서 그의 정신은 교육을 통한 개인과 사회, 국가와 인류를 개선하려고 한 계몽주의의 목적에서 멀지 않다.

기독교는 존슨에게 도덕적 틀을 제공했고, 그가 탐구하는 주제를 안내하는 장치였고, 그의 문학적 기교에 접근하도록 길을 여는 가이드였다. 그에게 있어 전통적 신앙은 문학을 통하여 표현되어야 했다. 그러므로 문학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인간의 정신을 가르치고 그 정신이 삶에서 실천되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윤리적 지침이 된다. 그의 작품에는 미덕과 악덕 사이의 투쟁,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의 허망함이 담겨 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기독교적 겸손과 경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종교적 성찰이 자주 등장한다. 문학은 인간의 성품을 다듬는 도구이고, 작가는 독자들이 미덕을 함양하고 교만, 이기심, 부도덕의 유혹에 저항하도록 도와야 할 도의적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존슨은 1750년에서 1752년 사이에 출판한 정기 간행물 『램블러』(*The Rambler*)를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플랫폼으로 삼는다. 그 바탕 위에서 도덕적 관심사에 집중한 존슨은 문학을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교육과 윤리적 고양을 위한 고전적 가치를 전달하는 매체로

일관되게 강조한다. 당시 과도기적 시류의 영향으로 악덕과 부도덕이 사회적으로 팽배하기 시작했고 이를 미화하는 문학이 등장하자, 시대적 흐름을 비판하고 좋은 글로 도덕적 개선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존슨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삼은 문학의 윤리적 비평가로 분류될 수 있고, 작가와 독자 모두에게 더 높은 도덕적 진리를 촉구한 기독교 옹호주의자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신성한 의무를 지닌 작가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공헌은 인간 정신을 올바르게 개선하는 데 필수적인 “옳고 그름에 대한 종교적, 도덕적 지식”을 전달하는 일임을 강조한다.<sup>1)</sup> 그에게 있어 글쓰기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사회 발전을 위해 재능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이자 봉사의 한 형태다. 이런 정신은 그의 지칠 줄 모르는 직업윤리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수필, 문학 평론, 전기 문학(biography)으로부터 기념비적인 영어 사전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글쓰기에 매진하고 또 그 열매를 맺는다. 소명에 대한 그의 기독교적 이해는 작가가 진리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자신의 신념에 근거한 관점이다. 존슨은 언어와 사상이란 두 가지 면에서 오직 진실만이 도덕적 명료성을 위해 중요하다고 믿었다. 그가 편찬한 『영어사전』(*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은 이런 신념을 이루기 위해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도덕 교육에 필수적인 영어의 표준화를 목적으로 완성한 작품이다. 여기에 더해 그의 글쓰기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그가 겪은 개인적인 고난과 기독교 신앙에서 비롯된 인간의 고통에 대한 존슨의 깊은 공감 능력이다. 그가 경험한 우울증, 가난, 질병 등 깊은 영적, 심리적, 육체적 아픔은 그를 인간 조건에 특별히 민감한 사람으로 만들어낸다. 그의 기독교 신앙은 그에게 고통은 삶의 근본적인 부분일 뿐만 아니라, 영적 성장의 통로라는 것을 가르쳐준 것이다.

존슨은 경험을 통하여 얻은 연민과 이해를 바탕으로 고통을 주제로 하는 내용을 그의 수필과 전기에서 자주 다룬다. 그러나 그는 인생에 닥치는 고난에 대한 단순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인내와 의지와 믿음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서 타인의 나약함과 고통을 공감함으로써 독자 역시 인내와 의지와 믿음을 경험하도록 유도한다. 그의 글은 자선과 자비라는 기독교적 가치를 드러내고 이를 통하여 독자들은 타인에게 연민과 친절을 베풀도록 자극을 받는다. 따라서 존슨의 글쓰기 스타일은 명확성, 절제, 도덕적 목적의식을 잘 반영한다. 그는 특히 산문에서 과도한 장식과 경박함을 피하고 도덕적 사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명확하고 직접적인 스타일로 대중을 공략한다. 이러한 언어적 훈련은 자제력, 절제, 도덕적 진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존슨이 가진 폭넓은 재능과 문학적 탄력성을 증명한다. 또한, 시인으로서의 재능은 윤리적 통찰력을 가지고 대상의 강

---

1) “Life of Milton” (393) from *The Lives of the Most Eminent English Poets*

점과 약점을 적절히 묘사하는 표현과 기교에서 잘 드러난다. 그것은 기독교적 미덕 가운데 하나인 공정함을 의미한다. 그는 시인을 이상화하지 않았고 결점이 있는 인간으로 간주함으로써 문학적 위대함을 추구하더라도 겸손과 도덕적 성찰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놓치지 않는다.

## II

이처럼 기독교적 이상(ideal)을 추구한 이면에는 모든 작가에게 적용되는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이고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그것은 문인으로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작가의 지위와 성공에 대한 야망이다. 존슨의 경우, 우선은 이상적으로 작가의 소명과 작품의 목적을 전통적이고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설정했지만, 과거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작가를 동경하는 사람에게는 이성의 시대라는 과도기적 현상과 변화하는 사회적 역학 관계 속에서 문인이 가질 수 있는 성공에 대한 깊은 야망, 즉 동시대 사람들의 경쟁 정신을 반영하는 세속적 인정과 명성에 대한 열망이 깔려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문학적 성취에 깊은 관심을 가진 존슨은 대중의 외면이 초래하는 문제점과 한때 위대했던 작가도 쇠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드러낸다. 작가에게 있어 지속해서 독자를 확보하고 문학적 명성을 유지하는 길은 지식과 노력, 재치와 능력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대중의 관심이란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존슨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작가에게 무시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으며, 무시에 비하면 비난과 증오와 반대는 [오히려] 행복한 소리다. 이 최악의, 이 가장 비열한 운명이야말로 감히 글을 쓰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해야 할 이유다.

[T]here is nothing more dreadful to an author than neglect, compared with which reproach, hatred, and opposition, are names of happiness; yet this worst, this meanest fate, every one who dares to write has reason to fear. (*The Rambler*, No. 2)

여기서 우리는 앞서 언급한 도덕주의자로서 겸손하고 독실한 작가의 모습과 동시에 문인으로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최선을 다해 세속적 성취를 이루어낸 존슨의 양면성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모호함은 존슨이 왜 글 쓰기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다. 그는 작가에게 부여된 도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글을 쓴 것일까, 아니면 문학적 명성과 세속적 보상을 얻기 위해 작가가 된 것일까? 이런 양면성은 그의 글에서도 나타난다. 한 예로, 수필집에서 그는 글 쓰는 목적을 미래의 행복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도덕적 훈육을 생각하고 미덕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설정한다(*The Rambler*, No 8).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멍청한 사람 말고 그 누구도 돈이 아닌 다른 걸 바라고 글을 쓴 사람은 없다”라는 명언을 남긴다(Boswell, 302). 이 양면성은 당시 논쟁거리가 되기 시작한 글쓰기에 대한 존슨의 복잡한 견해를 반영하고 있고, 도덕주의자면서 전문 문학인의 역할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갈등으로 보인다. 이러한 긴장은 18세기의 광범위한 사회 문제와 그 자신의 개인적인 종교적 신념과 얽혀 있다. 존슨에게 삶과 문학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로, 그가 느끼고 생각하고 쓴 글은 그가 살았던 문학 사회의 현실을 떠나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종교적 신념의 맥락과도 분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 III

무엇보다도 존슨의 삶은 더 이상 권력자의 후원에 의존할 수 없고 전적으로 대중에게 의존해야 했던 전환기 문학의 사회적 조건을 잘 보여준다. 당시 대부분의 작가는 엘리트 서클에 들어가거나 왕실의 명예를 누리는 등 과거에 누렸던 후원이나 기회 부족에 직면해 있었다. 후하고 자비로운 후원은 신화처럼 기억에 남아있었을 뿐, 더 이상 작가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지원 시스템으로 남아있지 않았다. 문인으로 살면서 존슨은 “부와 권력이 빈곤과 의존에 행사하는 잔인함”(the cruelties exercised by wealth and power upon indigence and dependence)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다(*The Rambler*, No. 163). 그러나 그는 강인하고 독립적인 인물로 후원에 의존하는 신세에서 벗어나 전문 작가로서의 입지를 굳힌다. 존슨은 1755년 『영어사전』을 출간하기 8년 전 출판 계획을 발표하면서 체스터필드(Lord Chesterfield) 경에게 지원과 후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체스터필드 경은 냉담한 무관심으로 일관하다가 자신의 후원 없이 사전이 완성되자 그제야 그 책이 자기에게 헌정되기를 바라면서 작업에 보답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한다. 이제 존슨의 차례가 되었고, 그는 체스터필드 경에게 보낸 유명한 편지에서 영문학은 이제 후원이란 제도로부터 자유로워졌음을 알리는 “최종 독립 선언”을 선포한다(Moody, 216). 이것은 영국 문학사에서 피할 수 없는 순간으로,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후원과 그들의 명예를 업고 작품을 썼던 시대에서 일반 독자들의 관심으로 옮겨가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후원의 족쇄”로부터의 자유는 독자들의 예측할 수 없는 변덕

에 의존하는 새로운 형태의 의존성을 낳는다. 이제 작가의 문학적 운명은 전적으로 독자들의 관심 또는 무관심에 달려 있게 된 거다. 일반 독자뿐만 아니라 비평가, 책 판매자, 동료 작가로 구성된 독서하는 대중은 문학적 환경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어렵게 만들었고, 작가의 작품은 다양한 반응에 노출되기 시작한다. 존슨은 자신의 저널에서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묘사한다:

누구라도 군중 가운데 등장하여 대중의 시선을 붙잡지 못하는 즉시 그는 숨어 있던 비방의 화살에 표적이 되고, 적대감의 소용돌이 속에서 멀리 이름도 모르는 손으로부터 치유하기 쉽지 않은 상처를 입는다. (*The Rambler*, No. 144)

작가는 대중의 시선을 성공적으로 견뎌내어 존경받을 만한 가치를 증명하지 않는 한, 그의 모든 노력은 허사가 되고, 필연적으로 노동의 대가는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종종 문학적 파멸과 무명작가로 사라지는 운명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다수 문인은 후원도 받지 못하여 빈궁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 존슨이 그 시대의 독특한 특징을 정의한 것처럼, “그때는 어떤 능력을 갖췄거나, 어떤 종류의 교육을 받았거나, 어떤 직업이나 직장을 가졌거나, 모든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출판사에 글을 기고하던 ‘작가의 시대’(The Age of Authors)였다”(The Adventurer, No. 115). 후원할 자원도 부족한 데다가 작가 수의 갑작스러운 급증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이다. 그중에서도 대중의 후원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작가들은 생존을 위해 많은 양의 시, 비평, 저널리즘을 생산해야만 했다. T. B. 매콜리(Macaulay)가 지적했듯이,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 지나고 기근이 시작되는 시기였다(37). 가난한 작가들이 많이 살던 그럽 스트리트(Grub Street)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며 어렵게 사는 작가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곳 거주자였던 존슨 역시 열악한 환경에서 문학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대부분의 작가와 마찬가지로 그는 극심한 가난과 고난을 견디며 온갖 어려움과 비참한 상황에 직면했었다. 1755년 『사전』을 출간하여 명성을 얻기 전까지 존슨은 무명작가로 전락할 운명에 처한 많은 문인 중 하나였던 거다.

따라서 존슨이란 문학적 천재가 주변의 수많은 삼류 작가로부터 자신을 차별화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 작가의 삶을 전염병처럼 괴롭히는 광범위한 경제적 빈곤과 심리적 고통을 인식한 그의 통찰력이 명성에 대한 야망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전문 작가로서 존슨이 대중의 호의를 구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절대 타락하지 않고, 자주 속지도 않는 대중은 문학에 대하여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The Rambler*, No 23). 그는 작가에게 가장 큰 보상은 대중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보장되는 지속적인 명성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모든 직업 가운데 작가보다 미래의

행복에 의존하는 일에 조심해야 할 집단은 없다고 경고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의 배후에는 대중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깊은 욕망이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작가라면 칭찬받고 싶은 야망은 은근히 숨기고, 그 대신 문학적 재능과 우수한 작품성을 가장해 조용히 청중의 호감을 얻으라고 제안한다. 그러면 “그는 더 나은 희망을 품은 작가로 시작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 큰 인정은 못 받더라도 실패에 대한 비난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존슨에게 이러한 접근 방식은 “시대의 잔혹함과 변덕스러운 비판”에 대해 불평할 기회를 사전에 없애기 위해 세운 방어적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존슨이 “놋쇠보다 더 오래 가고 피라미드보다 더 높은 기념비를 세우려는 듯이”(To raise monuments more durable than brass, and more conspicuous than pyramids) 세속적 위대함을 얻으려는 야망을 품고 글을 썼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No. 106).

그러나 존슨은 자신이 밝힌 글쓰기의 이유를 일관되게 고수하지는 않는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는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문학적 명성을 이상(ideal)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문 작가라는 직업적 감각이 동료 문인들 사이에서 문학적 야망을 이루기 위한 경쟁의 원동력이 됐을 수도 있다. 그러나 존슨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이상을 바람직하지 않고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이런 시각은 앞서 언급한 대중, 즉 집단 지성은 부패할 수 없으며 그들의 판단은 최종적이라는 자신의 초기 믿음과 모순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존슨은 대중의 취향은 시간에 따라 변하고 장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의 판단을 보편적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게다가 이러한 취향은 아첨, 악의, 질투 또는 편견에 의해 왜곡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이러한 왜곡은 종종 작가로 하여금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하여 대중에게 악의를 조장하고, 더 나아가 청중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위험에 주목한다. 존슨은 부패한 대중의 영향력 아래서도 작가는 자신의 원칙을 지키고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 그는 대중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허영심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신념을 희생하는 작가는 “살인보다 더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난한다(No. 77).

따라서 결론적으로 존슨은 작가들에게 대중의 칭찬을 구하는 데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고, 덜 유명해지더라도 진정으로 유용한 사람이 되는 데 집중하라고 조언한다. 평범한 작가의 반열을 뛰어넘고자 하는 욕망, 다시 말해서 존슨을 동시대 작가들과 경쟁 관계로 엮고 대중의 호감과 문학적 성공을 추구하게 만든 욕망은 궁극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는 작가들과 허영심을 공유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것을 깨달은 존슨은 그의 유명한 시, 『인간 소망의 헛됨』(*The Vanity of Human Wishes*) 중 “유베날리스를 모방한 열 번째 풍자”(Tenth Satire of Juvenal, Imitated)에서 이렇게 일갈한다.

셀 수 없는 [명성] 추구자들이 상승(上昇)의 문에 몰려든다,  
부에 굶주리고 위대해지려는 불타는 욕망에 쌓여,  
미혹하는 행운의 여신은 [그들의] 끝없는 간청을 듣는다,  
그들은 오르고, 빛나고, 증발하고, 그러다 추락한다.

Unnumber'd suppliants crowd Preferment's gate,  
Athirst for wealth, and burning to be great;  
Delusive Fortune hears th' incessant call,  
They mount, shine, evaporate, and fall.

이런 관점에서 존슨은 문학적 성취와 대중의 인정을 궁극적으로는 헛되고 순간적인 것으로 본다. 피상적이고 짧게 끝나는 외적인 명성을 배격한 그는 자기 내면에서 다시 도덕적 위대함을 추구하는 처음 정신으로 돌아간다. 기독교적 도덕주의자로서 문학가가 얻을 수 있는 진정한 보상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 그것이 더 높고 더 영속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독교적 소명을 부여받은 작가의 개념으로 받아들인다. 거기엔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신학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는 “기도와 명상”(Prayers and Meditations)에서 기독교 신앙의 절정을 보여준다. 죄에 대하여 끊임없이 싸운 흔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한 신앙인의 자세를 보여준다. 이 주제는 그의 이후 작품에 더욱 확대되어 기독교적 도덕주의자로서 존슨의 삶과 작품을 잘 설명해 준다.

## Works Cited

- Boswell, James. *The Life of Samuel Johnson*, Vol. 2. London: J. M. Dent & Co., 1906.
- Johnson, Samuel. *The Vanity of Human Wishes, The Rambler, The Adventurer from Selected Poetry and Prose*, ed. W. K. Wimsat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7.
- \_\_\_\_\_. *The Lives of the Most Eminent English Poets from Yale Edition of Works of Samuel Johnson*, ed. E. L. MacAdam, Jr. New Haven: Yale UP, 1958.
- Macaulay, T. B. *Critical and Miscellaneous Essays*, Vol. II. Boston: Houghton Mifflin, 1990.
- Moody, W. Vaughn, Robert M. Lovett, and Fred B. Millett, eds. *A History of English Literature* (8th ed.).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4.